

대리점 무한확장 이통사 '품질 확장은 안하나요'

광주 충장로 500m 반경에 27곳...편의점·빵집보다 많아 5G 기지국은 광주 4%·전남 1.9%...신안군 한 곳도 없어

광주 충장로 이동전화 판매점 포화도가 서울 강남·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주요 상권에 비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의 과당경쟁은 심해지는데, 이동통신사 3사는 정작 앞다퉀 내세우는 5G(5세대 이동통신) 통화품질 개선은 뒷전이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입수한 '전국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현황'에 따르면 11월 현재 광주 충장로 반경 500m 내 이동전화 판매점(직영·대리점 포함) 수는 27곳으로 집계됐다.

광주 주요 상권 중 하나인 충장로에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동통신사 3사 판매점이 운영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충장로 이동전화 판매점들의 포화도는 전국 주요 상권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9개 상권에 분포한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수는 295개에 달한다. 양정숙 의원이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해 이들 상권 분포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편의점(309개) 대비 비중은 96.2%, 빵집(181개) 대비는 163.2%로 집계됐다.

충장로 상권 내 편의점과 빵집 수는 각각 19개·16개로, 이들 매장 수를 기준으로 한 이동전화 판매점 포화도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충장로에서 이동전화 판매점이 같은 구역 내 편의점이나 빵집보다도 많다는 뜻이다.

충장로 편의점 수(19개)에 대비한 이동전화 판매점 비중은 142.1%로, 이는 부산 서면역(148.8%)에 이어 9개 상권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광주에 이어서는 서울강변역(109.4%), 경기 수원역(94.3%), 대구 반월당역(93%), 서울 강남역(77.1%), 신도림역(76.3%), 여의도역(64%), 대전 중앙로역(60.7%) 순으로 나타났다.

충장로 빵집 수(16개)에 대비한 이동전화 유통망 비중(168.7%)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부산 서면역(160.5%), 서울 신도림역(145%), 강남역(142.3%), 대전 중앙로역(121.4%), 서울 여의도역(114.3%) 등 5개 상권보다 높았다.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이 판매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 전략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지역 5G 인프라 구축에는 인색했다.

전국에 설치된 13만2008개의 5G 무선국 가운데 전남은 1.9%에 해당하는 2506개에 불과했다. 광주 비중은 4%(5341개)로, 서울(24.6%), 경기(23.5%), 부산(7.9%), 인천(6%), 대구(5%), 경남(4.4%)에 비해 낮았다.

신안군은 기지국이 아예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았고 완도군은 기지국이 달랑 한 개 설치됐다. 강진·고흥·진도군은 기지국이 각각 2개 설치됐는데 반해 곡성군과 장성군은 각각 159개, 107개가 설치되는 등 들쭉날쭉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반경 500m 안에 있는 이동전화 판매점은 모두 27곳으로, 편의점·빵집 수에 대비한 포화도가 전국 주요 상권에 비해 심각했다. 보행로를 사이에 두고 운영되고 있는 대리점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기지국이 10개 이하인 지자체는 34곳으로 이 중에 전남이 10곳(신안·완도·강진·고흥·구례·보성·진도·장흥·화순·해남)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5G 기지국이 한 개도 증설되지 않은 지역은 전국에 17곳이고, 이 중에 전남이 7곳(고흥·보성·완도·장흥·진도·화순·신안)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편의점과 빵집은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 출점 때 거리 제한을 두지만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은 가입자 유지 경쟁을 위해 직영대리점과 판매점의 출점 거리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일부 매장들의 명의로도 단말기 할부사기 등 각종 편법으로 인해 고객과 선량한 판매점주들이 그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통판매점이 단말기 판매에만 그칠 게 아니라, 다양한 양질의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57.32 (+14.01)
↑ 코스닥	826.97 (+8.51)
↓ 금리(국고채 3년)	0.955 (-0.025)
↑ 환율(USD)	1137.70 (+3.60)

2년 연속 원화 ESG 채권 발행 한전, 2000억 규모

한국전력은 국내 에너지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2000억원 규모의 원화 ESG(지속가능)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한전이 이날 발행한 원화 ESG 채권은 2년물 300억원, 3년물 1000억원, 5년물 700억원으로 구성됐다.

발행금리는 전례적 유통수익률 대비 평균 2.65bp(1bp=0.01%포인트)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된 에너지 기업 ESG 채권 가운데 역대 최저 수준이다. ESG 채권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한전은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국내외 신재생 사업, 신재생 연계설비 확충,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6월 5억 달러 규모의 해외 그린본드(채권)를 발행했다.

한전 관계자는 "2년 연속 ESG 채권 발행으로 친환경을 위한 에너지 전환 투자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선도에 앞장서 달리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조달재원 다변화를 통한 저금리 조달로 금융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반드시 성공하는 『농식품 상품기획·전략』

2020. 11. 4(수) 농업 하나로 유통 호남지사 강사: 최낙삼 교수



농식품 상품기획 성공하려면... 농업하나유통 호남지사는 4일 농업·농기협·농기업 상품 생산 업체 30여곳을 대상으로 6차산업 상품 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식품 상품기획·전략 특강'을 진행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 효율 극대화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국제 연구개발 추진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제적 연구개발이 추진돼 이목을 끌고 있다.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에너지신산업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이 연말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기술을 이용한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에 관한 국제공동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6일 1년여 간 공동연구 결과로 한국과 독일이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고 국제기술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4일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억원을 투자해 국내에서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전력, 한전KDN, 녹색에너지연구원, ㈜그린이엔에스 등이, 해외에서는 프라운호퍼, 뮌헨공대, 포르티스, 블루로 등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참여시켜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기술을 이용한 통합 EMS의 최적화 연구'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나주종합스포츠파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신재생 발전원과 열·전기부하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기존 설비에 대해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 기반으로 한 최적화 및 효율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과 공동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국제공동 연구는 태양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등 단일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최적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6월에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개발 산출물 및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지난달에는 온라인 시연 평가회도 가졌다.

사업단은 통합 EMS 수출을 위해 아프리카 가나와 협의 중에 있다.

㈜그린이엔에스의 권대운 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독일 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개발을 진행하면서 신기술을 배우는 데서 나아가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유럽 시장 진출의 발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며 "차후에도 통합 EMS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집적화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주상공회관 대회의실 새단장 기업 세미나·포럼 등 가능

광주상공회의소는 4일 광주상공회관 대회의실 리모델링 준공식을 개최했다.

광주상의 대회의실은 지난 1985년에 준공된 이후 한동안 지역 내 컨벤션 장소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으나, 시설이 노후화돼 지역기업들이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는 올해 7월 제한 입찰을 통해 내부 설계와 디자인은 서울권 업체에서 진행, 시공은 지역 업체를 선정해 뒤 공사를 추진했다.

리모델링된 대회의실은 총859㎡(260평) 규모로 회의공간과 VIP실, 휴게실 등 공간과 230인치 LED전광판, 음향·무대조명 장치 등이 구비돼 지역 기업들의 세미나와 포럼 등 다양한 행사 개최가 가능해졌다.

정장선 광주상의 회장은 "새롭게 단장한 대회의실의 지역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11월호

10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스 : 062-222-0195

특집 유네스코 창의도시 광주 미디어아트로 매력을 비춰라

- 6년 맞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 유네스코 선진 창의도시들의 활기찬 도시 브랜딩
- 세계 관광도시의 빛나는 전략들

화제의 전시

5·18 40주년 기념 상무관 미디어파사드 공연

클릭, 문화현장
신안 '1도 1뮤지엄 아트 프로젝트'

공연 화제
5·18 40주년 기념 창작뮤지컬 '광주' 서울 첫 무대

예향이 만난 사람
팔순 노모의 순례 '카일라스 가는 길' 감독 정형민
청룡기 준우승 주역으로 프로무대 도전 동성고 5인방

에향 초대석

5·18뮤지컬 <광주> 연출가 고선웅

"일어서는 힘 보여주고 싶어요"

유현준의 도시건축
스테이크와 와인, 엄청난 시공간이 농축된 권력자의 음식

문화 트렌드-5060세기는 세컨드 라이프
폰대 아닌 '어른 리더십'이 절실한 시대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알베르 카뮈 '페스트' 인간은 하나의 관념이다

향인의 '예술가의 한 끼'
소박한 바게트 하나로도 유쾌한 삶, 한복

문화 화제
국창의 예술혼 있는 28회 임방울곡악제 전국대회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
칸딘스키, 잡지 편집 경험이 추상화 '밀그림'

백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반세기 경쟁, 시대의 라이벌 남진·나훈아

사뭇따뜻 남도 한 바퀴-정충
문리·의향 정남진, 그윽한 장독 여행
- 문학, 갯벌, 숲의 품으로 정충심학, 매생이, 굴